

|                                   |                 |                                                      |
|-----------------------------------|-----------------|------------------------------------------------------|
| <b>전국<br/>이주노동인권단체<br/>공동기자회견</b> | <b>보 도 자 료</b>  |                                                      |
|                                   | 2026년<br>8월 14일 | 담당 : 박희은 사람이왔다_네트워크 집행위원<br>담당 : 정영섭 사람이왔다_네트워크 집행위원 |

##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질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잘못된 계절노동 정책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1. 개요

- 일시: 2026년 8월 14일(금) 오전1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경기이주노동자평등연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주최

### 2. 취지

- 지난 8월 7일, 여주시는 폭염으로 인해 중대경보가 발령중이었습니다. 36.7도를 넘는 불볕 더위였습니다. 그날막 하나 없는 땀벌에서 단호박씨 파종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오후 무더위에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한 후 실종되어 다음날 오후 7시 인근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라오스 국적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에 여주시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지, 4일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사건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땀벌에 작업을 강행한 고용주, 그날막 하나 없는 가운데 폭염시 안전,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고용주와 계절노동 운영책임인 여주시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울러, 여주시는 3년째 라오스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계절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절노동자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고 있고, 현재 1,9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모집, 선정, 송출 및 주요 업무 등 송출업체가 대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공개가 필요합니다.
- 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고용주는 계절노동자를 여주시로부터 배정받아 이주노동자를 불법파견, 중간착취 등을 의심케 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부는,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제도와 관련해서 인신매매 피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나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사망 사건 사례처럼, 이주노동자를 폭염에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폐지라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하지만 여전히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이에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질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정부의 잘못된 계절노동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3. 진행순서

사회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집행위원

발언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발언 :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책국장)

발언 :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 이주민센터 친구 고광민 변호사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발언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석원정 소장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문)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윤성민 변호사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송은정 집행위원

청와대 서한전달

##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질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잘못된 계절노동 정책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8월 7일 여주시는 폭염으로 인해 중대경보가 발령중이었다. 36.7도를 넘는 불볕 더위였다. 그런데 그늘막 하나 없는 땀벌에서 단호박씨 파종을 하던 계절 이주노동자가 오후 무더위에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한 후 실종되어 다음날 오후 7시 인근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라오스 국적의 30대 여성이었다. 경기도 여주시에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지 3일만에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이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또한 입국 후 제대로 된 적응과정도 없이 폭염에 작업을 강행하고 그늘막 하나 없는 가운데 폭염시 안전 및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고용주,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계절노동 운영책임 주체인 여주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브로커 개입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필수적이다. 여주시는 3년째 라오스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계절노동자를 도입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계절노동자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고 있고, 현재 1,9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력 모집과 선발, 송출 및 주요 업무 등을 송출 브로커 업체가 대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개가 필요하다. 계절노동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주시는 2025년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에서도 라오스 노동자들이 평균 450만원을 브로커에게 갈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고, 공무원들이 브로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난 바 있다. 브로커가 판치는 계절노동 제도에 대해 법무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라오스는 계절노동자 파견 업체들이 피라미드 형식인데, 정부에 등록된 에이전시 밑에 서브에이전시가 있고, 또 그 밑에 브로커들이 있어서, 계절노동자가 어디와 계약했느냐에 따라 송출비용이 다르다. 경기도 조사 당시 브로커 비용이 400-800만원이었고, 900만원을 뜯겼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행태를 법무부나 여주시가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놓고 있고 피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걸 이대로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고용주는 계절노동자를 여주시로부터 배정받아 이주노동자를 자기 사업장이 아닌, 다른 여러 사업장에 일을 시키는 불법파견, 중간착취 행위 등의 정황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의 계절노동자 제도와 관련해서 인신매매 피해 등 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사망 사건 사례처럼, 이주노동자를 폭염에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노동인권 침해, 인신매매 피해, 착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하고 있다. 잘못된 제도를 폐지하라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질환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 계절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주를 엄중 처벌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 내국인 기준으로 동등하게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라!
- 브로커를 수사하고 계절노동 브로커들을 근절하라!
- 고용주의 불법파견 의혹 수사하라!
- 인신매매 피해, 착취의 온상 계절노동 제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라!

2026년 8월 14일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및 참가자 일동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정의당경기도당/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채추방운동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양산작은사업장지역연대노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대학원생비정규연구자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충북이주노동인권모임 미나리,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안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너머서,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이주노동자센터살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첨부]

### 경기도 여주 계절노동 고 리0 (라오스 국적, 38세, 여성)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경과

#### 1. 사고 경위 (경기도 여주시 농촌인력지원팀장\_이하 담당 공무원\_으로부터 확인 내용)

- 8월 7일(금) 오후1시 50분경 경기도 여주시 소재 단호박씨 파종 작업 중 더위로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오후 2시경 숙소 이동을 위해 확인했으나, 이주노동자가 보이지 않아 고용주와 동료 노동자들이 주변을 찾았으나 못찾음. 이후 119 신고, 경찰과 소방이 합동 수색을 실시 했다고 함.
- 8월 8일(토) 오전 7시부터 경찰과 소방에서 현장 및 인근지역을 수색하던 중 오후 7시경, 작업장과 200m 떨어진 인근 수풀에서 이주노동자 사망한 상태로 발견
- 오후 8시경 여주세종병원 장례식장 이송함.
- 당일 여주지역 최고 기온은 36.7였음.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중이었음.

#### 2. 계절노동 입국 과정 및 재해 발생시 까지 근무내용

- 여주시와 라오스 정부 계절노동관련 MOU체결 (현재 3년째). 라오스 정부에서 송출업체를 통해 인력 모집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 (담당 공무원 진술). 송출업체명 : 쑥0위. 한국인 (한국과 라오스를 왔다갔다함)을 포함 3~4명의 담당자가 있음.
- 2026년 8월 5일 09:00 재해 당사자 고 리0 이주노동자는 라오스에서 한국입국.
- 2026년 8월 5일 11:00 여주시청 도착. (당일 70명이 입국) 기본생활교육 수칙, 마약검사, 출입국 등록 신청 업무, 신체검사. 법무부에서 공식 인정한 외부 직원(?)(송출업체 직원으로 추정됨)이 나와서 (라오스 통역 포함) 생활적응교육 3시간 진행.
- 2026년 8월 5일 16:00 고용주들이 여주시청 도착해서 이주노동자들 농가로 이동.
- 2026년 8월 6일 오전 6시부터 ~ 오후 5시까지 근무 (조식 08:30부터 40분간, 점심 12:00부터 40분간)
- 2026년 8월 7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오후 1시 50분경 더위로 작업 어렵다고 호소. 실종
- 2026년 8월 8일 오후 7시, 인근 수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 고용주는 법인 아닌 개인으로 계절노동 이주노동자 9명 배치 받음. 산재가입 확인.

#### 3. 근무 현장 사진 및 상황



- 그늘막, 쉼터, 화장실 주변에 전혀 찾아 볼 수 없음.
- 현장 방문 당일 낮 기온 31도. 햇볕이 직사광으로 내리쬘고, 그늘막이 전혀 없어 어지러울 정도로 무더운 상태. 사고발생 당일 36.5도로 여주시 폭염 중대경보 발령 중이었음.
- 고인 발견 장소는 작업 장소로부터 200미터 인근 수풀이었음. 발견이 늦은 이유에 대해 확인될 필요 있음.

#### 4. 사망 이후 경과

- 여주 세종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셔져 있음. 빈소는 별도 없음.
- 8월 10일 연합뉴스 기사 보도 ‘여주서 발일하던 30대 외국인 여성노동자 실종 하루만에 숨져’  
(기사 내용을 보면, 오후 3시에 일하던 농장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휴식을 취하러 간 뒤 사라진 것으로 보도됨. 담당 공무원의 진술과 시간 차이 발생함)
- 8월 11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성명 발표됨
- 8월 12일 여주이주권익센터 성명 발표됨
- 8월 12일 새벽 라오스에서 유족인 남편 입국. 오전 고인 시신 확인, 경찰조사, 숙소 방문, 사건 현장 방문을 하였다고 담당 공무원이 진술함.
- 동행은 유족인 남편과 여주에 있는 고인의 친척, 라오스 정부 송출업체 직원, 법률법인 00 사무장
- 법률법인 00 변호사에게 위임 한 것으로 이야기함.
- 8월 13일 원주 국과수에서 부검 예정. 12시 부검 종료. 종료 이후 국제 장례업체로 이동. 시신 방부처리, 특수 관 제작, 서류작업 예정
- 8월 14일 유족 라오스로 출국
- 8월 15일 오전 9시 35분 비행기로 라오스로 시신 송환.
- 담당 공무원은 고용주가 산재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산재 신청을 했다고 말함.
- 8월 12일 유족인 남편이 안치실 비용을 정산했다고 함 (담당 공무원 증언. 장례식장 담당자 확인), 장례 시신송환 비용 등은 라오스 정부 50%, 여주시 50% 부담. MOU체결 내용이라고 함 (담당 공무원 증언)

#### 5. 동료 및 마을 주민 증언 내용

##### 1) 동료

- 8월 12일 고 리0 님의 명복을 빌기 위한 기도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경기이주 평등연대에서 숙소를 찾아 방문함. (주민들에게 물어 물어 찾아감)
- 숙소는 A리 숙소 건물 1동 (오래된 주택), B리 숙소 건물 2동 (오래된 주택). 고인은 B리 숙소에 생활함. 내부 에어컨 없어 매우 더운 상황, 시설이 오래됨. 라오스,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여명이 함께 생활.
- 근무는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 고인이 사망한 날도 동료들은 오후 5시까지 작업함.
- 숙소 비용으로 1인 월 20만원씩 공제함.
- 임금은 남자는 1일 10만원, 여자는 1일 9만원. 월 200만원 정도

- 조식과 석식은 숙소에서 해결, 점심은 제공

## 2) 마을 주민

- 일손이 모자라 고용주에게 전화를 하면 이주노동자를 파견해줌. 하루일당 남자는 13만원, 여자는 11만원임.
- 농협을 통해 소개받으면 이주노동자 일당이 더 비싸다고 증언함.
- 고용주 정도의 규모로 이주노동자를 파견하는 곳은 없다고 함. 고용주도 농사를 많이 한다고 함.
- 담당 공무원은 농지 면적규모에 따라 계절노동 인원을 배정한다고 함. 고용주는 9명 배정이라고 함. (당일 라오스에서 3월에 입국한 분도 있었기에, 8월 5일 배정받은 인원이 9명인지, 아닌지 확인 필요함.)

## 6. 8월 12일 이주노동인권단체 대응

- 8월 12일 유족 입국 예정임을 기사를 통해 확인. 경기도를 통해 구체적 입국 시간 및 경로 확인 요청했으나 확인 안됨.
- 8월 12일 16:30 여주인권단체, 민주노총이천여주양평지부, 경기이주평등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장례식장 모임.
- 8월 12일 16:40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확인. 누군가 와서 안치비용을 정산하고 갔다함. 누구인지, 연락처는 확인해주지 않음.
- 8월 12일 17시경 유족 대리인이 2025년 경기도 화성 라오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을 대리한 변호사로 확인. 변호사에게 유족 입국 및 위치 확인. 변호사는 유족이 서울에 있다고 말함.
- 8월 12일 17시 30분 경 여주시 농촌인력지원팀장 (담당 공무원)과 통화. 유족 면담 및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관련 긴급 면담을 요구하며 여주시청에서 10분 뒤 만나자고 하자, 유족과 사고현장을 방문중이라고 이야기함. 그러면 사고현장으로 가겠다고 함.
- 8월 12일 18:00 사고현장 도착. 담당 공무원만 남아있음. 송출업체, 변호사 등 유족을 못 만나게 하기 위해 이동한 것으로 보임.
- 사고 현장 확인 및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응답 등 상황 파악
- 고용주 주소를 알려달라니 담당 공무원이 동네 명칭만 겨우 알려줌
- 동네 명칭으로 찾아가 이주노동자 숙소를 찾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정보 확인.
- 고 리0 님이 생활하던 숙소 확인. 동료 이주노동자들 만남. 조계종사회노동위 스님들이 기도를 올려주심. 동료들도 한국말 소통이 거의 안되나 함께 참여. 통번역 앱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질의 응답을 통해 근무 상황등 파악
- 8월 12일 20:00 여주세종병원 장례식장 안치실, 고 리0 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조계종사회노동위 스님들과 기도 올림.

## 7. 사건 발생 원인 및 문제

### 1) 안전 수칙 위반, 안전에 대한 인식 없음

- 고인이 밤 비행기로 한국 입국하여 체류와 관련한 검사, 교육 등 진행하고 농가로 배정된 이튿

날 새벽부터 일을 시킴. 여독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 구체적 업무에 대한 사전 인지 등도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

- 담당 공무원은 노동안전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안전 및 보호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애초 기본 생활 교육, 생활 적응 교육이라 말했음. 또한 법무부가 인정한 외부 사람이 라오스 통역을 포함 생활 적응 교육을 3시간 진행했다고 함. 이로 볼 때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과 기본권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폭염시 예방 수칙에 대해 여주시는 고용주에게 안내했다고 주장하나, 당일 36.5도 폭염 중대 경보 상황에서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 안됨.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늘막, 쉼터, 화장실 등 확인 안됨.

## 2) 사망 원인 및 규명 필요

- 담당 공무원 진술과 8월 10일자 연합뉴스 취재 내용과 사건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시간대별 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고 리0님이 오후 1시 50분 무더위에 작업 어려움을 호소, 숙소로 이동을 위해 14시경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119와 경찰 신고했다고 함. 그러나 연합뉴스에는 오후 3시경에 작업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옴.
- 작업 현장과 고인 발견 장소를 확인한 바, 200m 내 인근이고, 주변에 밭들과 얇은 수풀로 인해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음. 그러나, 실종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28-29시간이 소요된 것에 확인이 필요함.
- 8월 13일 고인의 시신을 부검 예정.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사망 원인에 대해 경찰 조사 및 119 신고 자료, 부검 결과 등을 포함하여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함.

## 3) 유족에 대한 정보 접근 제한 및 사건 축소에 급급

- 경기도는 지난 3월 이천 자갈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사망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조례안에는 유가족 입국 절차지원을 비롯해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숙박과 생활 지원, 장례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통역 및 행정절차 지원, 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정보제공, 심리 상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관련하여 경기이주평등연대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에 여주에서 발생한 계절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함.
- 그러나 계절근로는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 주체가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청장으로서 경기도 지방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음.
- 여주시는 유족 입국에 대한 정보, 유족의 체류지원, 유족에게 사망사건 조사 및 법률상담과 권리구제 정보제공, 심리 상담 등을 모두 송출업체, 연계된 법률 단체를 통해 모두 위임하는 것으로 보여짐.
- 이로 인해 여주시와 송출업체, 연계된 법률단체는 유족과의 만남, 소통을 일제 차단하고 있으며,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이 유족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또한 유족의 의사라며 거부함.
-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고인의 장례 및 송환, 산재 진행상황, 유

죽의 배.보상 절차 및 진행과정, 재발방지 대책 등 기본적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과 내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경기도지역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여주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계절근로 노동자로 입국하여 이주노동자가 폭염상황에서 사망한 사건임에도 이에 대해 사건 개요 및 진행 상황, 이후 대책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 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유족에게 정보 제공을 차단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기에 급급해 보이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 4) 여주시 계절근로제 조사 필요

- 여주시는 라오스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송출업체 쑈자위와 업무관련 소통 및 진행을 하고 있음. 법무부 계절근로제는 민간 송출업체가 개입할 수 없으나, 담당 공무원은 법무부도 인정한 업체라고 이야기함. 여기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함.
- 송출업체 쑈자위에 팀장은 한국인이라고 담당 공무원이 말했으며, 라오스와 한국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함. 라오스내 계절근로 인력 모집 및 송출, 연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며, 팀원은 3~4명이라고 함. 쑈자위와 팀장, 팀원들이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여주시 계절근로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최근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인신매매 등 피해나 문제가 없는 지 확인이 필요함.
- 여주시는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에서 계절근로를 담당하고 있으며, 팀장인 담당 공무원은 여주시가 전국에서 계절근로제를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인정했다고 이야기함. 그러나 경기도에서 2026년 상.하반기 1,900명의 인원이 배정되었고, 현재 1,900명이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함. 그런데 팀원은 라오스 통역(라오스 국적, 기간제)을 포함 3~4명 인 것으로 확인됨. 이 정도의 인원으로는 여주시 계절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안전 문제, 주거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을 제대로 보호, 보장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업무는 송출업체가 모두 대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됨. 확인 필요.
- 고 리0 님을 고용한 고용주는 계절노동자들을 배정받아 불법파견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이 이루어져야함. 이에 앞에서 여주시 계절근로 관리, 운영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 하지 않았거나, 송출업체, 농장주, 여주시 등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 있음.

#### 5) 고용주의 불법파견, 계약 위반, 인권. 노동권 침해 등

- 동료 증언, 마을 주민 증언을 통해 고용주가 계절근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배정받아 불법파견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이러한 사례가 여주시와 경기도 자치단체 계절근로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파악이 필요함.
- 또한, 동료증언과 마을 주민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불법파견시 이주노동자의 일당을 남자 13만원, 여자 11만원을 받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이주노동자에게는 남자 10만원, 여자 9만원을 지급하며 중간착취하는 것으로 의심됨.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 법률에 따른 처

별이 이루어져야 함.

-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근무가 진행되었는지, 숙소 비용을 월 20만원 공제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주거가 매우 낡고, 에어컨 등 냉방, 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인원수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여주시가 송출업체를 통해 계절노동자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함.

#### 6) 법무부 계절근로제 시행의 문제

- 전반적으로 법무부가 지자체와 송출국가 정부 MOU체결을 통해 계절노동자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업체 대행, 불법파견의 문제,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침해 문제등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 이번 여주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을 통해서도 계절근로제 운영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계절근로제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요구할 필요 있음.

#### 8. 사안에 대한 요구

- 여주시 고 리0 님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한 점의 의혹없이 철저한 진상규명
- 여주시 고 리0 님 산재사망사건 고용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 촉구
- 여주시 고 리0 님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 노동안전보건, 노동법, 근로계약에 대한 노동자 보호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 의무적 배치
- 여주시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대한 감사 및 공개
- 고용주에 대한 불법파견, 중간착취, 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 여주시 전역을 포함, 경기도 전체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자체에 대한 불법파견, 중간착취, 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독
- 법무부 계절근로제 폐지 및 전반적인 대책 마련 촉구

[발언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발언문]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

이틀전, 사망하신 이주노동자분의 시신이 모셔진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빈소도 없었고, 차디찬 냉동고 안치실에서 이름표로 그분을 확인했습니다. 고인의 이름아래, 상주가 라오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마 이주노동자임을 표기하기 위해 국적을 쓴 것 같은데, 저는 라오스 정부가 왜 라오스의 노동자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뒀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와 라오스 정부가, 그리고 여주시가 이 노동자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월 5일 한국 땅을 밟고, 다음날 바로 농사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중인데, 36.7도가 넘는 땀별 더위에 그늘막 하나 없는 곳에서, 제대로 허리도 펴 보지 못한 채 굵은 땀을 비오듯 쏟아가며 단호박씨를 땅속에 묻었을 그녀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일 오후 1시 50분경 무더위에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고용주가 숙소로 이동을 위해 잠시 쉬고 있으라고 했는데, 2시경 보이지 않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인근 수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작업장과 현장을 가보았지만, 거리가 그리 멀지도, 그렇다고 수풀이 매우 높고 우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찾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제게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최초 사건 발생(무더위에 작업이 어렵다고 호소. 연합뉴스는 3시경이라고 취재 보도) 언론에 보도된 시간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준 시간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왜 고용주는 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고인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다른 동료 노동자들은 폭염 상황에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왜 사건 발생 시간의 차이가 있는지, 왜 그 긴 시간동안 사람을 못찾은 것인지. 명명백백하고 조사되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조사가 되어야 사건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8월 12일 새벽 입국했다고 하는데, 유족이 사건현장에 있다고 했는데, 만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 송출업체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동행하고 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차단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군다나 송출업체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여주시 계절노동자 운영에 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 여주시 담당 공무원은 법무부에서 인정한 송출업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명백하게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 계절노동자 도입과 운영, 관리 전반에 송출업체가 긴밀하게 업무를 대행한다고 의구심을 갖게 했으며, 여기에 여주시 담당 공무원은 법무부에서 여주시가 계절노동 관련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한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평가의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지 법무부가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고용주가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을 마을에 인력이 필요하다하면 이발, 저발으로 사람을 불법파견하고,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불법파견과 중간착취, 불법 브러커 문제는 법무부 계절노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묵인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용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범위반시 명백하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주시에 대한 특별 감사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수 많은 지자체가 농번기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들여오지만, 여전히 시스템은 공정과 투명성에 아주 멀고, 이주노동자들은 인권, 노동권 착취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입국한지 4일만에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를 애통해 하며,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기관은 적극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계절노동에 대해 전면 개선을 촉구합니다.

## [발언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아라이 위원장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일 하고 있는데 산업 재해 ,폭염 등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 너무나 열악하고 법제도는 미흡하며 사업주한테만 모든 권한 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농업 등 많은 현장에서 야외 작업을 합니다. 이런 노동현장 이주 노동자들은 폭염시기에도 계속해서 일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쉬지 못합니다. 사업주들 이 폭염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안전보다 이윤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합니다.

모든 권리 사업주한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안전, 폭염 위험에 대해 제대로 교육도 받지못합니다. 이주노동자들더 안전하게 일 할 권리,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 이런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없이는 산업현장이 굴러갈수 없어서 이주노동자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권리는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다치던 죽던 관심이 없습니다. 사업주들이 이윤만 챙기면 된다고 합니다.

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다른 이주노동자 쉽게 고용할수 있게 해줍니다. 사업주들이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이주노동자한테 위험한 작업이든 폭염 상황이든 마음대로 일 시킵니다. 그래서 폭염 속에 인해 라오스, 태국, 베트남, 네팔, 중국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정부는 우리의 요구 무관심 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사업주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생명을 지킬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윤의 탐욕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한 사업주들이 제대로 처벌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시신돼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어떤 노동환경에 일하고 있는지 제대로 노동감독 해야합니다. 폭염 등 안전 문제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고용할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절노동 제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으려 오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 생명과 안전도 소중합니다!

## [발언문] 이주민센터 친구 고광민 변호사

지금의 계절근로제는 사람을 보호하기보다,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이번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계절근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난 8월 5일, 라오스에서 38세의 한 노동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주의 기온이 36.7도까지 오른 폭염 속에서 단호박씨를 심다가 “더워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실종됐고, 다음 날 작업장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수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이틀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제도는 이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했습니까.

현장에는 폭염을 피할 그늘막이나 쉼터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고인이 생활했던 숙소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낡은 시설에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함께 생활했다는 동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문제는 폭염과 주거환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주시의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 민간 송출업체가 관여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배정받은 노동자를 다른 농가에서 일하게 했다는 불법파견 의혹, 농가가 지급한 일당과 노동자가 실제 받은 돈의 차이에 따른 중간착취 의혹도 있습니다. 모두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합니다.

모집과 송출에는 브로커가 개입하고, 노동과 주거는 농가에 맡겨지고, 안전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서, 무엇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계절근로자의 노동 없이는 우리 농촌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이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계절근로제라는 제도를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가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도록 했다면, 책임도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자를 농가에 배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약대로 일하는지,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하는지, 부당한 파견이나 착취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도움을 받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합니다.

계절근로제의 성과를 몇 명을 데려왔고, 농촌의 일손을 얼마나 채웠는지만으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전하게 일한 뒤, 건강하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이 있다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동시에 브로커 개입, 불법파견과 중간착취, 임금과 주거, 산업안전까지 계절근로제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농촌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노동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계절근로제입니다.

모집과 송출부터 배정, 노동과 임금, 주거와 안전, 권리구제와 귀국까지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분명하고, 실제로 그 책임이 작동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들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면, 그 노동에 기대는 만큼 이들의 권리와 안전도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죽음을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계절근로제를 사람을 데려와 일손을 채우는 제도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을 위기상황으로 밀어넣는, 안전차별이 야기하는 죽음 앞에서  
부끄러움과 눈물을 삼켜야 하는가.

해남의 태국노동자, 홍성의 네팔노동자, 예산의 중국노동자, 충남 괴산의 베트남 노동자, 그리고  
여주의 라오스노동자.

2026년 사상 유례없는 폭염경보 속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신 이주노동자입니다. 그나마 알려진 분들  
입니다.

특별히, 계절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2026년은, 말 그대로 생사가 오가는 재난의 시기  
였습니다.

지난 5월 13일,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중지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  
동부는 특히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 폭염취약사업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폭염의 시기에 정부는 폭염위기, 중대경보를 쉼없이 내렸고, 매스미디어마다 폭염중대경보,  
주의사항, 대비사항 등을 부지런히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어느 지자체는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서 한낮에 밭에서 일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대한민국을 휩쓰는 폭염경보와 안내 속에서도 속출합  
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질적인 또 하나의 차별을 목도합니다.

안전차별,

아리셀화재의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안전 차별.

아리셀회사측의 안전조치, 안전교육, 대피로 안내 등에서의 차별은, 무려 18명의 이주노동자 사망  
을 야기했습니다.

2026년 폭염중대경보하에서도 노동을 쉴 수 없었던 안전차별은, 또다른 이주노동자의 사망을 야기  
하였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비극이 발생했음에도 원인을 고치지 않고 있는 무사안일이 참담하고, 그 피해가 이주노동자에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뒤틀린 제도에 희생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방치할 겁니까.

여주에서 사망하신 고인은 계절노동자였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입국한 다음날, 야외작업에 투입되었고, 이틀째에 몸이 좋지 않다며 휴식을 취하러 갔다가 실종되었고, 실종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마땅한 휴식시설이 없었고 차량으로 10분여가 소요되는 먼 거리의 숙소로 돌아간다고 했으나 실종되었습니다. 밝혀진 이 짧은 사실에는 의문이 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경찰의 조사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일 폭염주의,경보가 내려졌던 기상조건과 대낮이라는 근무시간, 발일이 야기하는 체열 스트레스 등은 사망과 폭염, 안전조치의 부재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비극은, 해를 갈수록 부쩍부쩍 늘어나는 계절노동자를 도입, 배정은 하지만 규모에 걸맞는 노동자 보호대책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절노동제도의 문제점은 2026년만 해도, 양구군, 고흥군, 함평군, 보령시, 상주시, 부여군... 등 사례를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터지고 터지고 또 터집니다. 발생하는 모든 사례들이 앞뒤전후관계를 살펴보면 영악없이 제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 하였습니다.

농사가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농업은 공동체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본 중의 기본인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계절노동자는, 바로 이 농업에 투입되는 사람들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초고령화,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식량이 안보화되어 가는 세태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산업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도로, 정책으로, 문화로 차별하고, 위기 속으로 떠밀어 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주의 이 비극은 물론이고 계절노동자 나아가 이주노동자의 비극에 대해 면책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계절노동자 주무부처인 법무부, 농업 계절노동자의 수급과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내 계절노동자 직접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 모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절노동 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그토록 수없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줄곧 모르쇠로 버티고 온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죽음 앞에서,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노동제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재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